

[로스쿨 합격기]

다듬어지고 있는 中間石이 가능성을 가진 原石에게

박 세 진

- 충북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I. 합격기보다는 조언의 글을 쓰고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글을 쓰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쓰신 형태인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전해드리는 합격기보다는 제가 겪은 입시 과정에서 느낀 많은 것들을 나뉘 다듬어서 조언해드리는 방향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가볍게 읽으시면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접어두시고 본인이 취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II. 노력하는 만큼 성취하는 가장 객관적인 스펙, 학점과 영어.

저는 가장 객관적으로 자신의 노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학점과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학점 변경의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각 학교들이 가진 학점의

체계나, 전체적인 학점의 인플레이션 현상, 월별로 꽤 차이나는 영어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경우, 학점과 영어라는 지표가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는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리트나 논술은 자신이 들인 노력과 비례하여 점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반면, 학점이나 영어시험의 경우는 다릅니다.

학점의 경우, 이미 3년 이상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기에, 학교에서 학점을 주는 기준이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파악이 어렵다면, 주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는 선배와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어서라도 자신의 베이스인 대학교 과정에서 최상의 성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절대평가인 대학교의 사정을 고려하면, 학점은 노력과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외적으로는 본인의 성실도의 척도로 작용합니다. 물론 고학점을 맞는 학생이 반드시 성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성실할수록 더 높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실제로 로스쿨의 절대적 상대평가체계 속에서 가장 큰 무기는 해당 과목을 마스터하고자 노력하는 성실함이기에, 대학교에서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성실함을 연습하고 오시길 바라고자 하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학점자체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성실함에 길들여져 오셔야 로스쿨의 뻑뻑한 커리큘럼을 소화해내고 이 안에서 적응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점회복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나아지는 성적을 통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성취하고 오시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성적이 높음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면, 쉽게 지치게 되며 속되게 학점의 노력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점을 위해 공부하는 것을, 로스쿨의 과정을 완수하고자 공부하는 노력의 과정을 미리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다 보면, 공부에 길들여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분명 낮은 학점임에도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고, 혹여 면접과정에서 낮은 학점에 대한 압박 질문이 들어온다고 해도 자신의 성실도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점 이야기가 꽤 길어졌지만, 영어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더욱이 영어의 경우 자신의 노력과 더욱 비례합니다. 매월 시험을 통해 점수를 높일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성실하게 영어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과 그 동의어들을 외웠는지, 핵심단어들의 다양한 의미들을 어떻게 외우고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듣기를 얼마나 반복했고, 듣기 과정에서

극복되지 않는 부분을 극복하고자 받아쓰기, 안 들리는 구간을 집중반복 듣고 단어 쪼개 보기, 한 문장씩 끊어 듣고 바로 따라 말한 후 직역하기 연습 등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따라 영어점수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세세하게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950점을 넘는 영어 점수를 위해서는 이런 미세한 노력들이 성실하게 수행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분명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힘든 입시라는 경쟁 속에서 적어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베이스가 되어 든든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결코 쉽게, 대충 학점과 영어 점수를 만들고자만 하시는 마음이 짐으로 시작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Ⅲ. 자신만의 목표를 잡고 시작해야 하는 스펙, 리트와 논술

제 경험과 주변에 입시를 겪은 많은 친구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리트와 논술은 들인 노력에 비례하여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리트와 논술이 미트나, 피트 시험과 달리 지식의 측정이 아닌 일명 법학적성능력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학교 과정에서 추리논증 과목에 해당하는 종류의 문제를 접해본 경험이 아주 없고, 길고 긴 언어이해의 지문을 제한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읽기 능력을 기르고자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릴 적 많은 독서를 하여 쉽게, 정확하게 지문을 소화하거나, 문제 해결능력 자체가 뛰어난 일부 학생들이 최상위층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례로 전 수능처럼 공부하고 과목별로 오답노트도 엄청나게 만들면서 노력했음에도 평균점수에 머무른 반면, 제 주변의 A씨는 큰 준비 없이 그냥 한 번 리트시험을 봤는데, 최상위에 해당하는 표점 1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많은 수험생들도 화나고 허탈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써 리트나 논술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험의 특성에 맞는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실제 시험과 맞춰서 풀어봄으로서 자신의 현재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소화해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낸 지문과 문제 종류를 확인해두고, 풀었음에도 정답을 맞히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간과했기에 오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현재수준

에서 맞는 정답 개수의 목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이해 35문제 중 자신이 풀 문제는 총 25문제인데, 정확하게 풀어서 맞힌 문제가 15문제정도, 어설피게 찍어서 맞힌 문제가 4문제, 풀었음에도 틀린 문제가 6문제 정도라면, (대부분 아무 준비 없이 문제를 풀어본 분들은 정답의 개수가 보통 19~20개입니다.) 리트 공부라는 훈련과정을 통해 제한시간 안에 30개의 문제를 풀고, 풀었음에도 틀린 문제와 찍어서 맞힌 문제를 명확하게 맞힐 수 있도록 정답 개수를 24~25개 정도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위 목표도 사실은 성취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 과목을 합친 정답개수의 평균이 43개정도일 때, 과목별 24개 정도의 정답 개수가 확보되어 48문제를 맞힌 경우, 평균 표준점수보다 기본 10점에서 크게 25점은 앞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세운 후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더 높은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혹은 리트 공부가 자신에게 잘 맞아서 쉽게 성적이 오르신다면 당연히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전략적으로 자신의 목표만을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리트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은 방법을 소개 해주셨을 것이고, 제가 리트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이 리트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평소 시험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만점을 목표로 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리트라는 어려운 시험은 자신에게 맞는 목표만을 세워서 최선의 input을 하고 극복해내시라는 말씀입니다. 리트를 자신의 목표만큼만 성취한다면, 자신의 점수가 평균의 리트점수보다 다소 부족하다 해서 완전히 뒤떨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처음 점수가 낮아서 목표를 낮게 설정했는지라도, 평균치에는 도달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고, 한 문제라도 더 맞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에 손을 대기에 정확히 답을 맞히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원가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되면, 타인과 자신의 정답개수를 비교하며 리트는 공부한 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등 불평을 하고, 나아가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리트 점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신의 목표 달성만을 위해 꾸준히 input하시길 바랍니다.

리트 이야기가 길어져서 상대적으로 논술이야기가 짧아지게 되었지만, 논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논술문을 써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단 시간에 3개

의 지문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글쓰기 수준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혼자서 글쓰기 수준이 파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이라도 글을 직접 쓰시는 분에게 첨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논술에 집중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고 여기에 집중하여 더 많은 훈련을 할지, 혹은 중간정도의 점수를 맞고자 적당히 노력하면 될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비현실적이고 어이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전략입니다. 입시생이 되었을 때, 하루가 48시간이 된다면 당연히 모든 것에 노력을 기울이시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24시간 중 제대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맞는 준비를 하시고 그 만큼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은 것이니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과감하게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IV.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열쇠, 면접...

객관적인 지표인 학점과 영어, 리트와 논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자소서 작성과 면접 준비가 남았을 것입니다. 자소서 작성은 각 학교별로 특성이 다르고 차이가 있으니 면접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면접은 말 그대로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면접관이 나의 모습, 자세, 표정, 말투와 습관이 모두 관찰하고 그것을 기초로 나의 답변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를 관찰하고 나는 코칭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입시생들이 자신이 답변이 틀릴까봐 걱정하지만, 실제로 더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습관이나, 면접에 응하고 있는 중간에 빠죽빠죽 나타나는 자신 없거나, 예의 없는 자세와 표정들입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자세나, 말투나 습관 등은 결코 단시간에 고쳐지기 어렵고 혼자서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면접스터디나, 면접강의 수강들을 통해 지적받고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면접에서 질문의 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상답변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접에서 정답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접문제 자체가 OX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상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관의 흥미를 끌 수도 있고, 자신의 논리력이나 가치관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을 대거나,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답변을 하는 경우 그 근거가 탄탄해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출이 되었던 면접문제 등을 가지고 그 해설답변이나 시사점들을 찾아가면서 면접과 관련한 지식들을 단 시간에 지속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논점 정리 등이 어렵다면, 이를 정리해주는 특강이나, 단 기간이라도 면접강의를 수강하여 거기서 많은 논점과 시사점을 얻어서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질문의 경우 전공과 관련한 질문을 할 경우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도 생각해보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1단계 통과 배수를 매우 크게 설정해 두는 것은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을 좀 더 깊게 평가해보고자 함입니다. 입시생의 입장에서 큰 배수의 1단계 통과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어도 면접이라는 기회를 한 번 더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표가 다소 부족할지라도 면접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아 스스로 빛날 가능성을 자신 원석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과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추가로 자소서에는 절대로 거짓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시간에는 반드시 자소서에 관련한 질문을 하시기 마련이기에 소설 같은 거짓말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들통 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실제 재학생에게 정보를 얻어서 쓴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학교가 실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공부하겠다' 가 아닌, '자신의 현재 상황은 이러하니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어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V. 어설픈 조연을 마치며, 무한 가능성을 지닌 원석이신 여러분께...

제가 입시를 겪으면서 느낀 점들을 제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리한 것이기에 정확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부분의 한마디라도 힘들게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께 작은 단서나 소소한 의미를 드려서 더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멋지게 세팅되어 찬란히 빛날 보석이 될 가능성을 가진 원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속의 의사로 불리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은 더더욱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의 과정은 내 안의 원석을 찾아 내어 멋지게 빛날 수 있는 세팅 보석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시 후, 로스쿨의 힘든 공부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계속 다듬어지면서 세팅보석의 형태를 갖춰가는 중간석으로 거듭나고, 후에는 법조인으로서 혼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가공의 과정을 거치며 어려움이 계속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짜릿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